“승가교육, 전법 역량 강화에 주안점”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18일 신년기자회견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 · 사진)이 올해를 ‘승가 전법 · 포교 역량 향상의 해’로 삼고, 승가교육 내 전법 역량 강화를 위한 학인 설법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교육 지표를 ‘전법 · 포교 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으로 삼았다”면서 “부처님께서 승가에 부촉하신 전법포교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승가교육 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법 역량 강화’를 교육 목표로 삼은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 사업들이 이뤄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오는 7월경 열리는 ‘제1회 조계종 학인 설법대회’다. 학인 설법대회는 염불, 외국어 스피치, 토론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되는 학인 대상 경연대회로 학인 스님들의 대중설법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열린다.

또한 승가대학 학인 스님의 전법 포교 역량 향상과 사찰 경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설법과 토론〉 〈종무행정〉을 신설했다.

승가고시와 연수교육에서도 전법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2급 승가고시에 이어 3급 승가고시에도 ‘설법’ 능력 평가를 도입하며, 모든 승가고시 논술에 ‘전법 · 포교’ 내용을 반영한다.

연수 교육에서는 ‘우리 사찰 신도 2배 늘리기’, ‘2박 3일에 끝내는 동영상 제작’ 등 실질적으로 포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하는 강좌들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전법사(가칭)’ 제도도 추진된다. ‘전법사’는 승가대학을 졸업한 학인들 중 우수 인원을 선별해 부여하는 일종의 교육원 인증 자격증이다. 교육원은 오는 2018년 기본교육기관 졸업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응 스님은 “1970년대에는 동국대 학인 법사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법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학인 스님들은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도 주지 부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법회에서 설법할 기회가 많지 않다”며 “지난 7년간 교육 불사를 통해 학인 스님들은 현대화된 불교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학인 토론대회를 보며 대중에게 법을 전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알았다. 법을 전하며 미흡함을 대중과 토론하고, 이 과정을 수행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교육 목표를 잡았다”고 밝혔다.

출가 진흥에 대한 사업은 행사보다는 내실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입산 행자들의 하산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사찰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구 본사출가지도법사 제도를 정착하고 상담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응 스님은 “출가하자마자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낯선 가치관과 문화”라면서 “왜 허드렛일을 하는지, 왜 새벽에 일어나는지, 대중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입산 행자들이 빨리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에 적응하고 승가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전문교육기관인 사찰승가대학원의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학점제 시행과 더불어 교수 스님들의 강의계획서 작성과 배포를 의무화한다. 불교와 제학문간의 융합, 사회적 의제에 대한 불교적 담론 형성을 위한 ‘전문연구자 연찬회’도 개최한다.

7월경 첫 학인 설법대회 개최
‘전법사(가칭)’ 자격 신설 추진
승가대 졸업 선별인원에 부여

교구본사 출가지도법사制 정착
입산 행자 조기 정착위해 지원
“구세대비, 바른 전법서 비롯돼
전법 · 포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2013년부터 시작된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편찬사업도 올해 마무리된다. 교육원은 〈백교회통〉 〈근대한국불교개혁론〉 등에 대한 영역편찬을 오는 8월 완료하고 9월 봉정식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응 스님은 “구세대비는 바른 법을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교육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스님들의 구세대비 원력 실현에 귀착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정혜사 지분, 수덕사와 절반씩”

대전고법, 화해권고결정… 소유권 정혜사 인정

정혜사 소유권을 둘러싼 선학원과 수덕사 간 소송에서 “정혜사 지분을 절반씩 하라”는 법원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정혜사 42만㎡ 부동산은 1918년 7월 정혜사에 사정된 토지이므로 정혜사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1월 9일자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토지를 정혜사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지분을 정혜사와 수덕사 각 1/2로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정서 송달 2주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정혜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원고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치고, 이후 2개월 이내에 수덕사와 합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합유물 처분 · 변경에는 다른 합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합유재산의 분할 및 처분과 합유지분의 처분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혜사가 수행정진 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덕사는 2018년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2천만원을 사찰유지 · 보수비 명목으로 지급케 했다.

판결이유로 법원은 일반 대중에 불법(佛法)을 전파하라는 만공선사의 뜻을 내세웠다. 또한 정혜사와 수덕사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도들의 인식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조계종과 선학원 사이 갈등이 있지만 선학원에 소속된 정혜사와 조계종에 소속된 수덕사는 만공선사가 중창한 뜻에 따라 승려와 관계자들이 수행정진하고, 대중에 불법을 전파하는 공동의 도량이자 공간으로 남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을 합유로 하는 것은 만공선사의 뜻을 받들고 정혜사와 수덕사의 화합을 기리기 위한 증표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학원 측은 2015년 수덕사를 상대로 1981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수덕사 명의로 변경된 소유권보존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했지만 이번 2심서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신년하례법회서 스님과 재가자들이 서로 배례하고 있다.

“信心不二 지혜로 깨어있는 한 해를”

종단협, 조계사서 신년하례법회

불교계를 대표하는 각 종단 지도자와 정관계 인사들이 모여 희망 가득한 정유년이 되길 기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1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 부처님전에 3배를 올리며 존중과 화합의 힘으로 한 해를 열어갈 것을 서원했다.

이날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들은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그만큼 정유년 새해는 희망과 환희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 또한 커지고 있다”면서 “시대의 엄중함 속에서 언제나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공심과 원력을 분별하는 지혜의 눈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신심불이(信心不二)의 밝은 지혜로 언제나 깨어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년하례법회에는 종단협 소속 각 종단 총무원장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김재원 문체부 종무실장, 각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진각 100년 향한 新불교운동 원년 삼겠다”

진각의범 정비 · 100년 비전 선포식 등 계획
1월 18일 회성 통리원장 신년기자간담회 개최

“올해는 진각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진각 100년을 향한 진각 새불교 운동 실천 원년의 해로 삼고, 지혜와 자주 및 화합으로 희망과 온기 넘치는 종단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사진)는 1월 18일 진각문화전승원 4층 대회의실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30대 집행부 주요 사업과 함께 청사진을 이렇게 밝혔다. 회성 정사는 “진각종은 올해 70주년을 맞아 의례와 의식, 교리, 문화 등을 체계화시켜 진각 역사를 바로 세울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진각의범’ 정비와 함께 불사 문화와 의례 개선 및 표준화, 의례 의식의 시각 · 음악적 요소 정비, 종단 유무형 문화재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각 역사자료실 신설 △진각종단사(전자도서) 지속적 발간 △진각 70년사 도서 및 영상콘텐츠화 △‘진각 70년 교화를 말한다’(가칭) 학술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진각 100년을 앞두고 비전도 마련한다. 6월 창교절을 맞아 ‘진각 100년 비전 선포식’을 열 예정이며, 진각 100년 준비를 위한 인재 결집인 ‘JGO 포럼’ 설립, 진각 100년 교화 자료집 등도 준비 중이다.

회성 정사는 “교구 중심의 교화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교구별 특성화 사업 및 포교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연수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제도를 개편해 스승들의 교화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지사업 확충과 참여기회 확대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피력했다. 교구와 심인당 교화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해 포교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특화된 심인당 운영, 신규 심인당 개설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진각문화사업단(가칭) 신설 △진각국제체험관 운영 △국제포교사 교육 및 배치 △국제구호사업 등 국제교화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회성 정사는 최근 불자수가 300만 명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다른 종교에 비해 신행 생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감소 이유라 생각한다. 그래서 전통적 포교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항상 진각종 스승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지만 2세 포교에 한국불교는 물론 우리 진각종의 미래가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회성 정사는 “그동안 우리 종단은 전통불교 의식서 과감히 탈피해 도심에 심인당을 개설하고 교화에 힘써왔다”며 “진각새불교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표가 되도록 종무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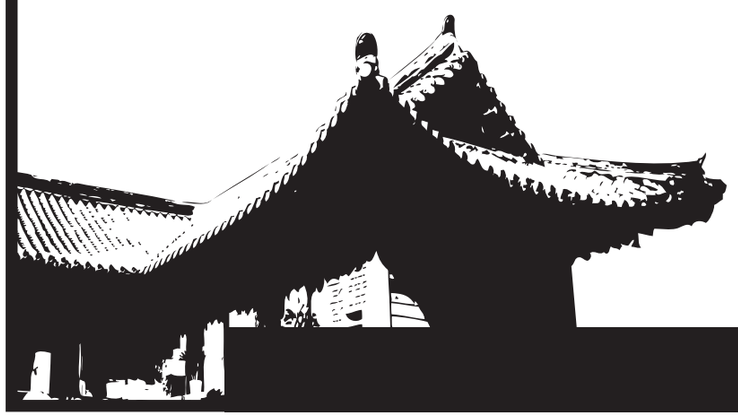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